

보성, 베트남 까마우성과 국제교류 강화

농업 인력·문화 교류·정착 기반 안전 방안 등 마련
김철우 군수 “공동 과제 ‘농업 인력난’ 해결 출발점”

보성군이 베트남 까마우성과 농업 인력·문화 등 국제 교류 강화에 나섰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위원회 후인지응웬 부위원장과 지방산업무역부·내무부·산업진흥센터 등 관계자 10명이 군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와 문화·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첫 교류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만남으로, 까마우성은 보성군의 근로자 지원 체계와 정착 환경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인력 교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보성군을 다시 찾았다.

간담회에서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 내 344가구의 다문화가족 중 188가구가 베트남 출신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근로자들이 지역 농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신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이 보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보성에서 익힌 영농 기술이 귀국 후 베트남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결혼이민·문화·청년 교류 등 양 지역 간 교류 확대 의지를 전했다.

후인지응웬 부위원장은 군에 파견된 근로자 중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없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군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까마우성이 농업·수산업 중심 지역으로 보성과 산업 구조가 유사해 근로자들의 현장 적응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까마우성은 올해 한국 9개 지방정부에 총 286명의 근로자를 파견했으며, 보성군은 지난 7월 협약 체결 후 10월에 42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근무 중이다.

대표단은 간담회 후 득량면 감자·쪽파

재배 농지를 방문해 근로자와 고용주를 직접 만나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화 △송출국 다변화 △문화·교육 연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후인지응웬 부위원장은 내년 열리는 까마우성 특산물 축제에 김 군수를 공식 초청하며 “일시적 인력 교류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교류는 양 지역이 직면한 농업 인력난이라는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며 “인력을 우선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보성군은 최근 군을 방문한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위원회 후인지응웬 부위원장과 지방산업무역부·내무부·산업진흥센터 등 관계자 10명과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와 문화·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하면서 힐링...함평 ‘블루 워케이션’ 인기몰이

직장인·프리랜서 대상 최대 60만원 지원
해양치유·축제 연계...지역경제 활력 기대

함평군이 관광과 업무를 결합한 ‘블루 워케이션(Blue Workation)’ 프로그램 운영하며 새로운 지역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블루 워케이션’은 직장인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전남의 대표 해양치유 관광지인 돌머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일과 쉼이 공존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스트레스 완화와 업무 효율 향상 등 근로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한 상생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참가자는 소정의 참가비만 부담하면 숙박 공간과 업무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돌머리 해수욕, 갯벌제

협 등 1인당 20만~60만원 상당의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군은 9일까지 열린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오는 28일 개막 예정인 ‘함평 겨울빛축제’ 등 사계절 축제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국화 전시, 야간경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참가자들에게는 업무의 피로를 해소하고 지역의 대표 문화와 정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블루워케이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관광정책실(061-320-2202) 또는 블루 워케이션 사무국(010-7457-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군수는 “블루 워케이션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우리 함평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앞으로도 여행객들에게 함평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담양 친환경 쌀, 서울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내년부터 3년 간 80만 학생 밥상 책임

담양군의 대표 쌀 브랜드 ‘대슬맑은 담양쌀’이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선정돼,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진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전국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업체 공모에서 담양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담양통합RPC)을 포함한 6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친환경 쌀 생산·납품 관련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선정된 업체들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서울지역 약 8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용 쌀을 공급하게 된다.

담양통합RPC는 서울시 11개 자치구와 제주도 학교급식용 쌀을 납품 중이며, 연간 1500t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또 프랑스 등 해외로 200t을 수출하고,



대기업 협업(CU편의점 도시락 등)을 통해 연간 5000t을 납품하는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며 지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대슬맑은 담양쌀’은 대한민국의 명품 쌀 대상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13년 연속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쌀이다.

담양군 내 8개 농협이 공동 출자에 운영 중인 담양통합RPC에서 생산되며, 담양의 청정 자연환경과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담양의 청정 자연환경과 영산강 사원의 깨끗한 수질은 친환경 농업의 최대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wnnews@gwangnam.co.kr

광양, 15일 ‘자원봉사 축제’ 개최

성황스포츠크터서 부스 운영

제11회 광양시 자원봉사 축제가 오는 15일 성황스포츠크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광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자원봉사축제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광양시립합창단 공연, 자원봉사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24개 자원봉사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 봉사활동의 성과를 담은 사진전이 열리며,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자원봉사의 의미를 다지게 된다.

임종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화합하며 다시 힘을 얻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우 광양시 주민복지과장은 “공동체 안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이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자원봉사자는 1011개 단체에 8만1247명(10월 말 현재 등록 인원)으로 전국에서 3위, 전남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양=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지난해 열린 '제10회 자원봉사 축제' 모습.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전경

고흥, 어촌 경제 활력 회복 기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100억 확보

고흥군이 어항시설 정비 등 어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 어촌 회복형’ 공모사업에 영남면 남열항 지구가 최종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어촌 회복형’ 사업은 기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새롭게 신설된 유형이다.

이는 기존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고 생활·안전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남열항 지구에는

4년간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70억원, 도비 9억원, 군비 21억원)을 투입, 남열항·용암항·우암항 일대의 어항시설과 생활·안전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파제 연장 및 보강, 물양장 확장 및 증고, 도로 및 진입로 정비, 마을복지센터 조성 등이며, 어촌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이 지역의 생활 기반과 어촌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81177@gwangnam.co.kr

‘ICT 활용 스마트 안전 돌봄 플랫폼’ 본격 설치

곡성, 고령인구 돌봄·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곡성군은 군민의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ICT 활용 스마트 안전 돌봄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비해 돌봄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자의 생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현재 읍·면별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00가구를 중심으로 기기 설치를 진행 중이다. 화정실에 설치된 스마트 스위치와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전력 사용량과 조명 스위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일정 시간 동안 변화가 없는 경우 이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해 119, 부양무이자, 생활지원사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알람을 전송한다.

설치가 진행된 가구에서는 “혼자 살지만 누군가 지켜봐 주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된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도 바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라 믿음이 생긴다” 등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모든 읍·면에서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며 “앞으로 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림 기자 holbul@gwangnam.co.kr